

칼빈과 16C 영성 : 재세례파와의 비교*

Calvin and Sixteenth Century Spirituality :
Comparison with the Anabaptists

Richard C. Gamble**

강 정 진 역

(역사신학)

目 次

- I. 서론
 - A. 논제
 - B. 규정된 영성
- II. 칼빈의 영성관 정의
- III. 고통 혹은 고난에 대한 칼빈의 견해
- IV. 교회내의 권징에 대한 칼빈의 견해
- V. 요약
- VI. 재세례파와의 비교
 - A. 서론
 - B. 개인적 거룩과 교회 권징(Discipline)
 - C. 고난과 Nachfolge Christi(그리스도를 따름)
 - D. 세례와 분리
 - E. 도시적 기독교와 교회 권징
- VI. 결론
- VIII. 심화 연구
- Bibliography

* 본 논문은 Richard C. Gamble이 1995년 칼빈연구학회(Calvin Studies Society)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 Richard C. Gamble은 미국 Grand Rapids, Michigan에 있는 Calvi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안에 있는 칼빈연구소(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소장을 역임했으며 역자가 소속되어 있는 세계 칼빈학회(Int'l Calvin Society) 연구위원으로 있으며 지금은 Gordon Conwell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여러 상황들 중에 시험받을 때, 결코 육체의 약함에 굴복하지 말게 하옵시고, 거룩한 소명을 결단코 잊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모든 사악한 정황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탄과 악한 이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마옵시며,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필요하다면, 죽음의 고통에서라도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싸움이 다할 때까지 매일 여러 가지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는데 주저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독생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행복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¹⁾

I. 서 론

영성에 대한 칼빈의 언급은 독특한 역사적, 신학적 상황가운데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불행히, 그 시대에 발견된 것들 중 비교할 작품이 거의 없고 영성에 대한 칼빈의 개념도 그의 시대에는 비교할만한 것이 없었다.²⁾ 윌리엄 부스마(William Bouwsma)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바 있다. “부분적으로는 영성이라는 개념이 개신교학문에 위치할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대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주로 교의 신학자로 보기 때문에 칼빈의 영성은 학자들로부터 뚜렷한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다.”³⁾ 칼빈을 교의학자로 보고 그로 인해 그의 영성에 대한 연구가 방해를 받는다는 부스마의 의견에 대한 정확성은 반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칼빈의 영성이 빈약한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경향이였다.⁴⁾

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Book of the Prophet Daniel* [Daniel 7:25], trans. Thomas Myers (Grand Rapids: Baker, 1979), 70. Subsequent references to the commentaries as well as to the sermons are to Calvin's works.

2) Lucien Richard investigated probable predecessors to Calvin's spirituality, e.g., *the Devoio Moderna*. Cf.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1974), 12-47

3) W. Bouwsma,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in *Christian Spirituality: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ed. Jill Raitt (New York: Crossroad, 1987), 333.

4)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is seldom examined." Howard G. Hageman, "Reformed Spirituality," in *Protestant Spiritual Traditions*, ed. Frank C. Senn (New York: Paulist, 1986), 60.

A. 논제

본 논문의 논제는 당시 재세례파와 칼빈의 영성관을 주의 깊게 비교할 때 많은 연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 논제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 접근은 영성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창출하고, 제한된 비교를 할 것이다. 비록 제한된 비교들이 심도깊은 연구를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그것들은 연계성을 증명하기 충분한 양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연계선들(lines of connection)을 설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칼빈과 재세례파 간의 완벽한 연계성을 주장하는 노력은 없다. 그리고 불연속성은 각주로 분류할 것이다.

B. 규정된 영성

우리의 문화적 정황에서 ‘영성(spirituality)’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본 논문이 취약한 한가지 이유는 영성 자체의 현재 연구가 혼란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다.⁵⁾ 20세기 학자들은 카톨릭과 개신교 영성 간의 차이점이 있고, 종교 개혁이전 영성은 초기 신플라톤 주의자들의 천년으로부터 중세의 변화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더욱이, 20세기 영성에 대한 20세기 학풍 자체가 유동적 상태에 있다.

방법론적으로, 20세기의 혼란을 16세기 영성의 논의 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실수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영성에 관한 정의를 다루기 위한 노력은 아주 신중해야한다. 내가 취할 방법은 주제에 관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합할 것이다.

오토 그윈들러(Otto Grundler)는 칼빈의 영성이 존재론적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인 두 차원을 가진다고 한다.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으로 알려지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믿음직함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내면적인 증거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인간의 신앙 활동에 의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이 연합은 그리스도의 의를 반영하려는 열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칼빈에 대한 그윈들러의 이해에 따르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다.⁶⁾

5) There have been recent attempts to return to what has been termed “biblical” or “Hebraic” spirituality, i.e., Anders Nygren, *Agape and Eros*, trans. Philip S. Wat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However, much modern scholarship rejects attempts to find one single strand of spirituality in the Bible since, as Gordon Wakefield, editor of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asserts, “the unity of the Bible is a myth” (p. 363).

칼빈의 영성에 대한 루시엥 리샤르(Lucien Richard)의 주요 작업은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시작점이다.⁷⁾ 그는 칼빈의 초기(1536 *Istitutes*) 영성을 내가 네 부분으로 분리해놓은 방식으로 정의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 (The Knowledge of God and Man)
2. 인류에게 신앙, 예배, 그리고 순종의 의무를 부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경배하기. (Honoring the glory of God that places upon humanity the obligations of faith, service, and obedience)
3.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의존. (Total dependence upon Christ the incarnate Word of God)
4. 경건한 예배에 대한 인간의 응답. (The human response of piety worship)⁸⁾

하워드 하지맨(Howard Hageman)은 영성에 대한 칼빈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세례에 의한 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허용된다. 세례 이후, 말씀의 선포에 대한 주의깊은 집중과 성찬 참여를 통하여, 신자들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⁹⁾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이들 세 학자들 개개인은 매우 유사한 정의를 취한다. 그 정의는 다음 두 가지 주요 핵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선택행위에 있어 하나님 자신과 그의 사역의 본질에 대한 지식, 둘째, 그러한 지식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 연구서의 목적이 칼빈의 영성관에 대한 완벽한 보고와 정의가 아니라, 칼빈과 그 동시대의 어떤 이들과의 연계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의 영성관에 대한 제한된 부분에 주의를 집중할 것이다.

6) Otto Grundler, "John Calvin: Ingrafting Christ," in *The Spirituality of Western Christendom*, ed. Rozanne Elder (Kalamazoo, Mich: Cistercian, 1976), 172-87.

7) His definition: "By spirituality I mean the personal assimilation of the salvific mission of Christ by each Christian and this in the framework of new and ever evolving forms of Christian conduct. Spirituality means the forms that holiness takes in the concrete life of the believer. The concept of spirituality implies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progress in holiness, that there is a need of working toward perfection, and there are certain means and ways of attaining such perfection." Lucien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I*.

8) Ibid., 99.

9) H. Hageman, "Reformed Spirituality," 60-72.

II. 칼빈의 영성관 정의

칼빈의 영성관 첫 부분, 즉 위의 행동에 관한 하나님 자신과 그의 사역에 대한 지식, 은 다른 사람들에게 칼빈 신학의 기초로써 기술되어 왔다.¹⁰⁾ 그러므로 칼빈의 영성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관해 집중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칼빈의 저작 중 훌륭한 자료는 “크리스천의 삶에 대하여(On the Christian life)”라는 1539년판 「기독교 강요」의 17장인데, 이것은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의 3.6-10의 핵심을 제공한다. 이 부분은 처음 영어로 1549년 *The Life and Conversation of a Christian Man*(크리스천의 삶과 대화)로 번역되었고, *Golden Booklet of True Christian Life*(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황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출판되었다. 포드 루이스 베틀즈(Battles)판으로¹¹⁾ 요약해 보면, 우리는 칼빈의 목적이 기독교인의 삶이 어떻게 바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칼빈은 이중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동기를 보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했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 거룩성으로 인한 구원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 죄값의 지불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모범을 제공하셨다. 하나님 측에서의 이러한 사역(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과 본보기)은 거룩성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분투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¹²⁾

그리스도인의 삶에 첫 번째 기초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라고 주장한 후, 칼빈은 “좀더 완벽한 교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의 방식에 안주하지 말라¹³⁾”는 두 번째 규칙을 준다. 이 두 번째 규칙에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인간들의 관계에서 자신을 부정하고¹⁴⁾,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권리를 복종시키라고 강요한다.¹⁵⁾

10)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nd epistemology have been frequently discussed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for a summary, cf. R.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1990" in *Calvinus Sacra Scripturae Professor*, ed. W. Nueser (Grand Rapids: Eerdmans, 1994), 105-8.

11) John Calvin, *The Piety of Calvin*, trans. and ed.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Baker, 1978), 51-53.

12) Ibid.

13) Ibid., 55.

14) Ibid., "For when Scripture bids us so act toward men as to prefer them in honor to ourselves and to try faithfully to advance their good..." (p.57). "For who can discharge all the duties St. Paul demands

적어도 부분적으로,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택에 있어 그의 사역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지불하신 죄값을 알 것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사랑함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법에 연관된다, 그것은 로마교회에서 발견되는 지나친 자기희생을 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영성의 모델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스스로가 모범을 제공하신다.

칼빈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그것과 평행 구도로 그린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그의 첫째 아들, 그리스도안에서 시작하셨고, 이제 그것을 모든 이들을 향하여 실행하신다.”¹⁶⁾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을 이해한다.¹⁷⁾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하고,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징조이며, 하나의 영예인 것이다.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지만, 순종과 인내를 낳는다.¹⁸⁾

그리스도의 지상적 삶과 그리스도인의 지상적 삶의 평행적 구도를 세운 후, 그는 그리스도인의 지상적 삶의 본질을 분석한다. 지상적 삶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상술하기 전, 우리는 그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의 도시 생활과 비교해서, 16세기의 도시 생활은 훨씬 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있던 때이다. 칼빈은 그의 시대에 많은 고통들을 기술했다: “하나가 가면 또 하나가 오며, 천 종의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제 페스트가 우리를 괴롭히고, 이젠 전쟁, 이번엔 추위 혹은 우박이 농작물 휩쓸고, 궁핍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제 우리는 부인과, 아이들, 친척들을 죽음으로 잃고;

unless he denies himself, to devote himself wholly to his neighbors?” (p.59). “That in all he has and can do he is a debtor to all his neighbors, and that he must not limit his obligation to do them good except as his resources fail...” (p.61).

15) Ibid., “We are not to seek what pleases us but rather that which pleases God, exalts his glory”(p.56). “He alone has duly resigned himself to the Lord who willingly lets his whole life be governed at God’s pleasure” (p.63).

16) Ibid., 64.

17) Ibid., “Accordingly the apostle announces that God has set this end for all his children to shape them to his Christ.” (p.64).

18) Ibid., 65-72.

때로는 우리의 짐들이 불타 버린다.”¹⁹⁾ 그는 또한 이런 고난들, 예를 들자면, 그의 자식들뿐 아니라 그의 아내가 젊은 나이에 죽음, 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핵, 치질 풍으로 인한 그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시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이었다.

칼빈에게, 지상적 삶은 “공허(vanity)”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할 일이었다.²⁰⁾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졌고,²¹⁾ 지상적 삶을 경멸하게 되었으며²²⁾,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쓴다: “죽음의 날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과 환희로 기다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수련장(Christ's school)에서 진보할 수 없다.”²³⁾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기쁨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가져다준다는 그의 지식이 그리스도인을 위로한다.

지상적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한다.²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생필품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준다. 성경은 “술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가르친다.²⁵⁾ 창조의 선한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인해 성경에 언급이 없는 이 땅의 선물에 대해 율법에 묶일 수는 없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이 성도에게 땅의 산물들을 즐기고 사용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고있는 것을 강하게 확신한다. 이런 규칙들 혹은 지침들은 세상의 물건들에 대한 애정없이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인내로 가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한 것

19) Ibid., 63.

20) Ibid., “For although this life is full of countless woes, still it is numbered among God's blessings” (p.75).

21) Ibid., “Accustom ourselves to despise the present life and so by this to be aroused to mediate upon the life to come”(p.72-73). “But all we take away from uncontrolled love of this life we must transfer to the heavenly life” (p.75).

22) Ibid., “Our heart is never seriously aroused to desire and mediate upon the life to come without first being touched by contempt for earthly life” (p.74).

23) Ibid., 77.

24) Ibid., “All our goods God has given into our keeping on the one condition that they be distributed to benefit others” (p. 59).

25) Ibid., 79-80.

이며,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의 주님께 계산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을 어떤 경제적 제한을 두시고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한 안에서 기쁘게 사는 법을 배워야한다는 그의 이론을 주장한다.

이 간단한 요약은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인의 응답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게, 영성은 지식과 삶 모두를 포함한 인간의 적절한 응답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영성의 개념을 기술할 수 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진심어린 현실참여로 응답할 것이다. 그 모방은 매우 특별한 지침들, 즉, 칼빈에 따르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지침들, 안에서 이해되질 것이다. 영성을 정의한 후, 특별히 그것들은 세계와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서로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지상의 삶과 신자들의 그것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만 할 것이다.

Ⅲ. 고통 혹은 고난에 대한 칼빈의 견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와 내적 일치를 위해 부름 받았다고 칼빈은 확신한다.²⁶⁾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지어진 존재는 이 삶에 고통이라는 외적 경험을 위해서도 불리워 졌다.²⁷⁾ 지상적 삶의 외적 치욕들과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의

26) Calvin warns his readers to discipline themselves so that they are not mentally absorbed in the cares of earthly life. For Calvin, when Jesus called on his disciples to “watch,” he was calling them to an “uninterrupted attention which keeps our minds in full activity, and makes us pass through the world like pilgrims.”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Matthew 24:42],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160.

27) “He then shows, by the very order of election, that the afflictions of the faithful are nothing else than the manner by which they are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There is therefore no reason for us to be grieved, or to think it hard and grievous, and unless we are afflicted, unless we disapprove of the Lord’s election, which we have been foreordained to life, and unless we are unwilling to bear the image of the Son of God...”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Apostle to the Romans* [Romans 8:29],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316-17. “That we suffer with him, in order that we may be partakers of his glory. By death he means all that outward mortification of which he speaks in 2 Corinthians 4:10.”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2 Timothy 2:11],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217-18.

유사성을 반영하며 옛 사람의 내적 죽음과 동행한다.²⁸⁾ 칼빈에게는, 그리스도인 삶에서의 고난(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법으로 인해 온다.²⁹⁾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올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의 고치심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또한 오는 것이다.³⁰⁾ 고난은 육신을 복종시키고 자만을 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칼빈은 우리의 지상적 고난을 하늘을 향해가는 한 단계로 보았다. 그리스도의 지상적 삶은 우리의 그것들과 평행 구조를 이룬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최 정점에 도달하는 고통받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의 삶.³¹⁾ 고통이 죽음의 그림자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우고, 그들의 외면적 삶들은 죽음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인 죽음을 사는 것처럼 묘사된다.³²⁾

고통에 관한 칼빈의 견해는 지상의 산물에도 관계되어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

28)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Grand Rapids: Eerdmans, 1959), says: "The sufferings of Church under the cross have so close a relation to the death of Christ, and to His suffering, that in partaking of these sufferings both the Church and the individual within the Church may be said to 'hold fellowship with the sufferings of Christ,' or to experience a 'communication of the death of Christ,' or to participate in the 'fellowship of the death of Christ.'" (p.70). In his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Peter 2:24],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Calvin say: "but when he says that Christ suffered, that we being dead to sins should live to righteousness, he intimates that there is power in Christ's death to mortify our flesh...The death of Christ is efficacious for the expiation of sins, and also for the mortification of the flesh." (p.94). Cf. *Ibid.* [1 Peter 4: 1], 120-22.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LCC, 200 (1.16.3).

30) Calvin believed that our suffering here on earth is a necessity.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lalms 85: 6], vol. 3,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371:"As our corrupt nature is ever relapsing into the wanton indulgence of its native propensities, manifold corrections are indispensably necessary to subdue it thoroughly."

31) *Commentary on Epistle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Philippians 3:10],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99 : "We must all therefore be prepared for this, that our whole life shall represent nothing else than the image of death, until it produce death itself, as the life of Christ is nothing else than a prelude of death."

32)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John 12:24], vol.2,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79), 28: "When, therefore, the godly are distressed by various afflictions, when they suffer hunger, or nakedness, or disease, when they are assailed by reproaches, when it appears as if they would every hour be almost overwhelmed by death, let them unceasingly consider that this is a sowing which, in due time, yield fruit."

들에게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대한 제한된 향취를 주셨다고 확신한다³³). 제한된 부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일에 열중하지 않고, 미래 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지상의 기쁨이 그리스도인을 회피하고, 고통의 잔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죄에 비추어 이익을 당연히 억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불평만 하게 된다고 칼빈은 믿었다.³⁴)

IV. 교회내의 권징에 대한 칼빈의 견해

교회 권징에 대한 칼빈의 개념은 자연의 체계와 교회의 기능과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³⁵) 개개의 신자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으로 뿐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member-ship)으로 거룩하게 된다. 성화와 교회 지체감(membership)은 분리될 수 없다.³⁶)

「기독교 강요」 4.12.5 에 따르면, 칼빈은, 세 가지 이유로, 교회 권징의 목적을 개관했다.³⁷) 첫째, “그의 거룩한 교회가 악하고 방탕한 자들의 공모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33)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salm 85:13], vol. 3, p.379.

34)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salm 128:3], vol.5,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117.

35) Calvin is crystal clear that the ground of all holiness comes through the work of Christ alone. Without union with Christ, there is no holiness. In Calvin's time and culture, union with Christ and union with a confessing church were to be inseparable. For Calvin, God's gift of the Holy Spirit is not primarily individual but given within the context of the body of believers. Cf.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1 Corinthians 12:13], vol. 1,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406. Cf. also *Institutes*, 4.1.20: “because the Lord has promised his mercy solely in the communion of saints.”

36) Calvin links election, church membership, and sanctification inextricably: “It [sanctification] results from the election of God, when, having been embraced by faith the doctrine of Christ, we follow it during our life.” *Commentary on Gospel according to John* [John 13:18], 64.

37) These three distinguishing marks were created for the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Worship at Geneva*, 1537. Cf. James Cameron, “Godly Nurture and Admonition in the Lord: Ecclesiastical Discipline in the Reformed Tradition.” In *The Danish Reformation against Its International Background*, ed. Leif Grane and Kai Horby (Go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264-65.

수 없다.” “악한 불명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그의 집단으로부터 추방되어야만 한다.” 교회 징계의 두 번째 역할은 악한 자들의 집단에 의해 타락하는 것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죄범하는 형제와의 연합을 금지하라고 할 정도로 악한 자들과의 교제유지를 위협하게 여겼다.” 셋째 목적은 회개를 돕는데 있었다. 교회는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며 죄인에게 일시적인 유죄선고를 내렸다.

이 주제에서 특별히 중요점은 교회 권징의 두 번째 역할, 즉 세상에서 신자들의 유대성에 관련된 교회 멤버십에 대한 칼빈의 견해이다. 만일 개개 신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칼빈이 옹호하는 것인데³⁸⁾, 교회 권징은 그 분리에 대한 강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빈은 성화를 정의했다; “*sanctify* 라는 단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기 위해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³⁹⁾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분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적 삶에서 죄 자체, 즉 술 취함, 불경건 등등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⁴⁰⁾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들은 죄인들 그 부터로 - “모든 불경건을 타파하고, 우상숭배로부터 분리되며, 자신을 하나님에 거룩한

38)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rophet Daniel* [Daniel 7:5], vol. 2, trans. Thomas Myers (Grand Rapids: Baker, 1979); *Speaking of the church*, Calvin said: “and although they are pilgrims in the world, yet their life is in heaven, where the eternal inheritance remains for them which was obtained by Christ. As, therefore, their treasure is now in heaven, they deservedly boast of being citizens of heaven, and brethren of angels. Thus they are properly called ‘saints of lofty ones’; they are separated from the world, and know themselves to live here day by day until they arrive at firm and enduring repose.” (p.65); Cf. *Sermons on Deuteronomy* [Deuteronomy 5:12-14], (1583: reprint, Carlisle, Pa.: Banner of Truth Trust, 1987), 200-205.

39)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phesians 5:25-27], (1562; reprint, Carlisle, Pa.: Banner of Truth Trust, 1973), 577. For other place where the Word *sanctification* denotes “separation,” cf.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Ephesians 5:26],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319.

40) Calvin’s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salm 97:10], vol. 4,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67 says: “He shows from the very nature of God that we cannot be judged and acknowledged to be his servants unless we depart from sin, and practice holiness. God is in himself the fountain of righteousness, and he must necessarily hate all iniquity, unless we could suppose that he should deny himself; and we have fellowship with him only on the terms of separation from unrighteousness.”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Ephesians 2:13-15], 196: “let us see to ourselves that we walk in pureness of life and with such conscience towards our neighbors that we may do no man wrong or harm, and finally let us withdraw ourselves from all the defilements of the World.”

예배를 더럽히고 망치는 모든 오염으로부터 순전하고 오염없이 지키기 위해서”⁴¹⁾ - 분리되어야만 된다. 모든 죄인으로부터 육체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모든 개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라고 칼빈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성에 대한 약속에 참여하고 이방인들 (unbelievers)과 구분해야 하셨다.⁴²⁾

칼빈은 신명기 7장을 선포할 때, 1555년 8월에 그의 회중에게 명백히 그의 생각을 표현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경고하셨고 우리가 불경건한자들과 연합한다면 그들을 선하게 이끌기보다는 그들의 악에 빠진다고 경고하신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회중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만일 달리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단지 속임수이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⁴³⁾

이 설교에서, 칼빈은 이런 훈계들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 명확한 인내함으로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회중들에게 경고했다. 불경건한 자들과 교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과 알지도 말고 친교하지도 마십시오. 이들에게는 우리를 함께 묶을 명애가 있습니다. 여기계신 한 분이 악한 자들과 먹고 마실 때, 그들에게 빌붙어 그들의 친구가 될 때면, 하나님을 더럽히고 상심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불경건한 자들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면,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굶은 길로 가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도 않고 완전히 성실한 삶을 살지도 않는 그들의 표리부동 함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냉정함으로 방문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정도 악한 자들과 관계를 맺을 지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41)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salm 16:4], vol. 1,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220.

42) John Calvin, “Sermon on 1 Corinthians 10:19-24,” CO, 49:675: “La religion emporte qu'ils soyent comme un corps uni pour estre separe d'avec tous incredules.”

43) Calvin, “Le Premier Sermon sur le Chap . VII. v.1-4”; CO, 26:506.

그러나 그들에게 꼼짝못하게 얽히고 친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은 우리를 이길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힘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악한 교만 아닙니까?⁴⁴⁾

고린도후서 6:14 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이 지적에 적절하다. 성경본문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본문은 보통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칼빈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견해이지만 현실(the context) 는 그들이 실수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⁴⁵⁾ 라고 주장하며 이런 일반적인 해석에 반대했다. “바울의 가르침(Paul’s doctrine)은 오로지 결혼에 제한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데까지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악한 자와의 결혼 또한 금지된다. 때문에 실제적용(the context) 에서는 확대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이 인용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부적당한 행동을 하지 않게 특별히 기술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방인들(ungodly)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신자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다.⁴⁶⁾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스스로 구별해야 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우상 숭배적 활동들이 있었다.

교회와 교회내의 그리스도인은 죄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구별되어야만 했다. 이 전의 세상은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과 동떨어진, 현재 삶과 연관된 모든 것”으로 칼빈은 묘사한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묶는 기쁨들, 즐거움들, 이러한 모든 유혹들이 세상에 있다.”⁴⁷⁾ 다시, “world 라는 용어는 여기서 광범위한 용어이다, 왜냐하면 성령에(Spirit of God) 반대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모든 욕망들(lusts), 모든 사탄의 술책들, 간단히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무엇이든지 모두.”⁴⁸⁾ 칼빈은 요한1

44) CO, 25:506-507.

45)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2 Corinthians 6:14], vol. 2,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259.

46) Ibid. [2 Corinthians 6:16], 279.

47) 2:16], 187. Cf.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24:42], 160 : Christians are “not to satiate themselves with the world, if they wish to advance with speed to the kingdom of Christ.”

서 2:17의 요한의 가르침을 요약한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세상에 유혹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⁴⁹⁾ 에베소서 5:16절의 “redeem the time(때를 아끼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주해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유혹의 끊임 없는 변화의 결별하는 것; 우리 자신을 세상의 걱정과 기쁨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한마디로 모든 장애들을 포기하는 것이다.”⁵⁰⁾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를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중 하나는 다음 문장이다: “이 두 흐름(extremes) 사이에는 중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게 되거나 혹은 세상이 그것에 대한 억제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옴아 메거나 둘 중하나이다.”⁵¹⁾

V. 요약

칼빈은 크리스찬의 삶은 질서정연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만 한다.⁵²⁾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48)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John 5:4], 255. This definition is supported in the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Galatians 6:14], 184-85: “Whatever is opposed to the spiritual kingdom of Christ is the world, because it belongs to the old man; or, in a word, the world is the object and aim of the old man.”

49)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John 2:17], 188. These words are echoed in Calvin’s *Sermons on the Epistles to the Ephesians* [Ephesians 5:15-18], 541: “We know that our happiness does not consist in this transitory life which does not continue, but is like a shadow that soon vanishes away.”

50)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Ephesians 5:16], 314. Calvin expresses a similar statement: “So that we, despising the world may wholeheartedly aspire to meditate upon the life to come.” *Calvin, Piety of Calvin*, 75.

51) Calvin, *Piety of Calvin*, 74.

52) Calvin’s goal of a well-ordered Christian life should not be polarized against the Anabaptist goal of a “holy” Christian life. A well-ordered life for Calvin will necessarily be a “holy” life, for that life will be well ordered around the commands of God. Contra Jean Elen Goodban Runzo, *Communal Discipline in the Early Anabaptist Communities of Switzerland, South and Central Germany, Austria and Monavia, 1525-1550*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78) who asserts that “they [magisterial reformers] used discipline to ‘maintain order’ in the church on earth.” (p.28) If that statement is true of some Reformers, it appears difficult to assert against Calvin.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모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고난 받을 것이다. 이 고난은 크리스찬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순례자가 천상의 본향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기능 중 하나는, 개개 신자들이 그의 소명에 충실하고 또한 교회에 충실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돕기위해, 권징의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VI. 재세례파와의 비교

A. 서론

널리 알려진 2차 자료에는, 칼빈과 재세례파 사이의 유사성은 무시되거나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영성 부분에 있어서 몇몇 유사성들이 발견됐다. 윌리엄 발케(Willem Balke)는, 그의 책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칼빈과 급진적 재세례파들)*에서, 칼빈과 메노 시몬스는 “교회의 권징(discipline), 성경적 순종, 경건한 삶, 그리고 국가로부터 교회의 근본적인 독립성과 같은 문제들에서 같은 입장을 취한다⁵³⁾고 주지한다. 교회와 권징(discipline)에 관한 재세례파의 언급에 칼빈 스스로가 비평한 사실에도 직면해서도 Balke가 옳다고 할 수 있는가? 칼빈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기독교강요에서 한 부분으로 역점두어 다루었고 재세례파들이 도덕적 불순결함을 목격한 교회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거절했다.⁵⁴⁾ 칼빈은 아마도 재세례파들이 교회가 순결하지 않다⁵⁵⁾고 교회를 떠난 도나투스주의(Donatism)의 죄와 같은 실수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표면적인 불일치에 비추어보면 우선 연계성이나 유사성에 대한 발케(Balke)의 주장을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보다 깊이 조사할 때 일견 타당성이 있다⁵⁶⁾

53)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Eardmans,1981), 208.

54) *Ibid.*, 116-17.

55) *Ibid.*, 168.

56) It will become evident that there is much to commend Balke's thesis here. Robert White, "Oil and Vinegar: Calvin on Church Disciplin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8, no. 1 (1985): 25-40, esp. 37, notices that in the case of church discipline at least, "the possibility that Clvin may even have learned from the Anabaptists cannot be discounted."

영적인 연계성에 대한 발케의 이론을 입증하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는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초기 재세례파 영성)”라는 제목의 현대 문헌으로 돌아온다. 서문에서, 한스 힐러브란트(Hans Hillerbrand)는 그가 재세례주의자 영성의 주요특징에 대해 숙고한 것을 보여준다;

1. 도시적 기독교에 대한 반대 (opposition to a civic christianity)
2. 산상설교에서 보여지는 개인적 거룩성 (personal holiness as seen in the the Sermon on the Mount)
3. 고난(suffering)⁵⁷⁾

힐러브란트(Hillerbrand)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의 복합성으로 인해, 나중에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들은 칼빈에게서 쉽게 논증할 수 있다.

B. 개인적 거룩과 교회 권징(Discipline)

재세례파 영성의 특징인, 개인적 거룩성의 중요성은 *Golden Booklet* 에 제시되었다. 칼빈과 재세례파들 모두에게, 개인적 거룩성은 교회의 권징(Discipline) 과 연관된다. 아마도 재세례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권징과 교회 멤버십에 강하게 연관되었다. 그 칼은 “그리스도의 완전”⁵⁸⁾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 권징(출교, excommunication)는 법적 결과를 가지지는 않았다.

재세례파 생각에 진정한 교회의 표지인, 파문(the ban)은 교회 권징의 적당한 방법이었다.⁵⁹⁾ 재세례파의 파문(the ban)과 제네바에서 칼빈의 출교(excommunication)은 기능상 유사성이 있다. 파문은 개인적 부도덕에 대항한 기능이었다; 그것은 개인적 죄들의 수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⁶⁰⁾ 아마도 철저히 열거하여 나열하지 않아도, 칼빈에 의해 기술된

57) Hans Hillerbrand,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trans. and ed. D. Liechty (New York: Paulist, 1994), xv-xxiii.

58) *The Schleitheim Confession*, sixth point. Cf. Text and annotation in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19 (1945): 245-53, esp. 250.

59) Cf. the excellent article by Timothy George, “The Spirituality of the Radical Reformers,” in *Christian Spirituality*, 354.

60) *Ibid.*, 355 : “heavy drinking, adultery, swearing oaths, marriage to an unbeliever, teaching false doctrines, unrelieved quarreling with spouses, and embezzling the congregation’s monies.”

삼중적 목적은 *Racorian Catechesis*에서 폴란드의 재세례파들에 의해 공들여 만들어진 권징의 오중적목적과 동일하다.⁶¹⁾

C. 고난과 *Nachfolge Christi*(그리스도를 따름)

고난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Golden Booklet*의 요약을 통해 이미 개관되었다. 고난에 대한 재세례파의 견해는 *Nachfolge Christi*의 가르침으로 개괄된다. 50여년전에, 그것은 재세례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라고 주장되었다.⁶²⁾ 그리스도를 따르다는 것에는, 크리스찬은 그의 고난에 필연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Nachfolge Christi*는 자기부정(*Gelassenheit*)과 연관되는데, 이는 중세의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다.⁶³⁾

남부독일의 재세례파, 한스 후트(*Hans Hut*)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성경전체와 모든 창조물들이 그의 모든 멤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증한다.”⁶⁴⁾ 한 개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께서 그를 위해 준비되어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참을 준비”가 되어있을 때 세례 받을 준비가 되었다.⁶⁵⁾ 오스트리아 출신, 한스 슬라퍼(*Hans Schlaffer*)는 성경으로부터 이렇게 주장한다; “아벨로부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선택받은 자들의 고난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초 이래로 죽임 당하신’ 이유이다.”⁶⁶⁾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크리스찬의 고난을 다시한번 연결하면서, 슬라퍼(*Schlaffer*)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리스도의 삶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그가 했던 것처럼 살아야만하고 걸어야만 하는 증인의 모델이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하는 모델 혹은 본보기를 남겨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61) *Ibid.*, 354-55. Calvin’s first reason (that the filthy dishonor God by calling themselves Christians) is the same as the fourth and fifth; the second and third; Calvin’ third purpose (aid to repentance) is the first given by the Catechesis.

62) Harold S. Bender has done work on the *Nachfolge Christi*, although it had been made earlier by Johannes Kuehn (1923). Cf. Bender’s “The Anabaptist Vision,” *Church History* 13 (1944): 3-24, also “The Theology of Discipleship,”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24 (1950): 25-32.

63) Cf. T. George, “The Spirituality of the Radical Reformers,” 340.

64) Hans Hut, “On the Mystery of Baptism,” [1526] in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trans. D. Liechty (New York: Pauist, 1994), 69.

65) *Ibid.*, 72.

66) Hans Schlaffer, “Instruction on Beginning a True Christian Life,” in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103.

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태도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⁶⁷⁾

고난과 그리스도를 따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 이론은 칼빈의 사상에서도 수위를 접한다. 예를 들어, 로마서 주석에서, 칼빈은 양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품는 것으로 연관시키고, 이 형상 품기(image-bearing)는 십자가 지기(bearing the cross)를 포함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only-begotten son of God)의 형상으로 닮아지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⁶⁸⁾ 그의 「빌립보서 주석」에, 칼빈은 *Nachfolge Christi*(그리스도를 따름)를 크리스찬 제자도의 필수 요소로 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그에게 보여진 조건을 인정하도록 하자.- 그의 전 삶이 그의 죽음으로 변해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그를 따라야만 한다; 그러므로 죽음에서의 부활은 특별히 언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기전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자... 그러나 우리가 그의 구성원이라면, 불해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참여자가 되는데, 이것이 선택의 위로이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난을 통해(디모데후서 2:11), 그 도(the way)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열린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⁶⁹⁾

D. 세례와 분리

칼빈과 재세례파들 간의 다양한 유사점이 주어질 때, 칼빈의 사상으로부터의 분리의 시작을 세례의식으로 주장한 것은 놀랍지 않다.⁷⁰⁾ 다른 말로, 칼빈과 재세례파들은 모두 세계를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해 포기한 상태로 보았다. (제네바에서 어린이로서 그리고

67) *Ibid.*, 104.

68)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318.

69)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Philippians 3:10], 99.

70) Bucer already instigated various steps in “confirming” the sacrament of Baptism through the life of the believer, culminating in “profession of faith.” Cf. Kenneth R.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An Anabaptist Contribu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13 (1982): 43-58. esp. 49-50.

재세례파에서는 어른으로서 세례받은) 교회의 성인 구성원에 대한 전망으로부터, ‘분리된 (set-apart)’ 크리스찬 삶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은 당시 재세례파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칼빈과 재세례파는 세례를 노아의 구원(Noah's deliverance)으로 비교한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세계적 홍수로부터 노아의 구원은 세례의 상징이었다 (벧전 3:21). 그가 말했듯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데, 이 노아의 구원과 동일하다.”⁷¹⁾ 더욱이 칼빈은 그의 독자들에게 “세상을 경시하는” 노아의 본보기를 따르라고 훈계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역시, 세상은 예전과 같이 불신앙자들로 가득차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원 하시도록,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무리를 고무하시도록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필요하다.”⁷²⁾ 베드로 전서 주석에서, 칼빈은 세례를 세상에 대한 부인과 연결하는 재세례파와 명백히 일치한다: “이것은 세례로 증거된다.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장사된다. 그래서 세상과 육체에서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게된다.”⁷³⁾ 다시 말하기를: “이 시대에, 세례로 죽음은 우리를 삶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구원의 희망이 없다.”⁷⁴⁾

에베소서 에 대한 칼빈의 설교에서 같은 가르침이 발견된다. 세례와 교회의 멤버십을 연결시킨 후, 칼빈은 그의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시킨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으로서 살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으신 바로 그 이유가 세상과 악의 어둠으로부터 자신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세례파들과의 좀더 깊은 연계성에는, 칼빈은 *Nachfolge Christi*로 세례와 분리를 연결시켰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모든 세상의 불결과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어떻게 작용하나를 보여준다.”⁷⁵⁾

71) *Commentaries on the Book of Genesis* [Genesis 7:17], vol. 1,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Baker, 1979), 273.

72) *Ibid.*

73)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Peter 3:21], 117.

74) *Ibid.*

75)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phesians 2:13-15], 194.

재세례주의자들과 칼빈 사이에 중요한 신학적 차이를 인정할지라도⁷⁶⁾, (양쪽 모두 세례를 통해서) 교회 멤버쉽과 권징사이에 근접한 연관성에 대한 사상 *de jure*에서 유사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재세례파들은 유아세례 *de facto* 는 단지 세례받은자의 삶에 있어 “돼지의 목욕(pig’s bath)”이고 의미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프게도 너무 자주 맞아 떨어 졌다.) 칼빈은 믿는자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세례로 인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교회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는 그것이 문제시되는 것으로부터 그 징조를 분리하는 익숙한 신학적 견지로 그 문제를 역점두어 다루었다.: “세례의 표지는 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을 씻는 것이고 육체를 억제하는 것이다.”⁷⁷⁾ 칼빈은 여러번 그 표지가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쓸모없어 보이고, 그 표지(물세례)를 ‘물질(the thing)’과 동일시하는 것은 카톨릭 교도들의 잘못이라고 고백한다, “그것의 실체는 단지 소수에서 발견될 뿐이다.”⁷⁸⁾ 이 인정된 적자(shortfall)는 제네바에 있는 신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졌다.⁷⁹⁾ 칼빈은 리베르망(Libertines)과의 싸움에서 실존적으로 이 투쟁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멤버쉽과 권징 사이에서의 본질적인 연관을 가진다는 칼빈 자신의 이론을 지지했던 리베르망(방종주의자들)의 추장은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었다. 그는 재세례파들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 제네바에서는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교회의 충실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다스리셨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⁸⁰⁾

76) For example, the Anabaptists as a group generally held that repentance preceded faith, while Calvin maintained that repentance was a fruit of faith.

77)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Peter 3:21], 118.

78) *Ibid.*

79) “In emphasizing a proper exercise of discipline, Calvin was explicitly concerned to restore what he regarded as genuinely biblical features of the first Christian society and also the practice of the early church...” James Cameron, “Godly Nurture and Admonition in the Lord,” 267.

80) John Knox noted that he had never seen such good behavior in a city. John Knox to Mrs. Locke, December 9, 1556 in *The Works of John Knox*, vol. 4, ed. David Laing (Edinburgh: T. G. Stevenson, 1854-64), 240. We should remember that between 1557 and 1560 excommunication in Geneva was pronounced, on an average, over two hundred times a year.

E. 도시적 기독교와 교회 권징

재세례파 영성의 힐러브란트(Hillerbrand)의 첫 번째 특징, 즉 도시적 기독교, 는 주목되어야 한다. 도시교회에 의해 설립됨으로, 재세례파는 단지 기독교가 이름만 크리스찬 즉, “세례받은 크리스찬들”을 생산것에 주목했다. 이런 현실은 “도시 기독교”를 반대하게 했다. 칼빈의 응답은 잘 질서잡힌(well-ordered)교회는 삶으로 그들의 기독교 정신을 증거는 멤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 안의 “위선자들”에 대한 현실은 칼빈에게 도시 교회 개념이 거절될 필요없고, 오히려 권징에대한 그의 사명에 더 충실해야한다고 확신되었다. 사실상, 크리스찬 자신드의 소명으로 그 단체를 악한자들로부터 지켜야하는 필요성은 칼빈의 교회 권징에 대한 세 가지 이유들 중 첫 번째였다.

칼빈이 1537년 *Ecclesiastial Ordinance*(교회 법령)를 제정했을 때, 악한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데 관련된 교회 권징은 매우 중요했다. 그런 권징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정당성은 명확히 표현되었고 우리가 전부 들어야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의 교회에 출교라는 징계와 권징을 세우셨다. 이로써 그는 그들의 삶에 무질서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는 자들과 권고 받아야 할 자들은, 개심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실어 할 때, 교회의 지체로부터 추방당해야만 하고, 그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까지, 잘려야한다. 이 권징의 방법은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만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⁸¹⁾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칼빈의 인용은 새롭지 않다. *Rule of Saint Benedict* (성 베네딕트 수도 규칙)로 돌아가더라도, 마태복음 18:15-17은 교회 권징의 기초이다, 그리고 이미 쾰빙글리에게도 인용되었다.⁸²⁾ 이 인용에서 “교회”라는 칼빈의 개념이 그 당시

81) Cameron, “Godly Nurture and Admonition in the Load,” 266.

82) Ibid. White, “Oil and Vinegar: Calvin on Church Disciplin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8 (1985): 25-40 notes the difference between Calvin and the Catholics who use the “power of the keys” of Matthew 16:19 and John 20:23 (p.27). E. McKee, “Calvin, Discipline, and Exegesis. The Interpretation of Matthew 18:17 and 1 Corinthians 5:1-3 in the Sixteenth Century,” in *Therie et pratique l'exegese*, ed. 1 Backus (Geneva: Libraire Droz, 1990). McKee gives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these texts from patristic times to the sixteenth century.

많은 사람들과 틀리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Elsie McKee는 사법률위 업무가 합법적인 종교의 소명이라는 것을 허용할 때, 그 인용대한 “루터파”와 “쯔빙글리파”는 평신도 의회(혹은 “그 교회”)가 도덕 감독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는 것에 허용적이다.⁸³⁾

초기 외콜람파디우스(Oecolampadius)와 부처(Bucer)에 따르면, 칼빈은 여기 “교회”가 심지어는 크리스찬에게서도- 왕족 혹은 치안판사(magistrates)로 인정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맥키(McKee)는 칼빈의 의견을 정확히 요약한다.: “치안판사들(Magistrates)은 평신도 장로들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신도로서 그들의 개인 능력안에서 선출된다. 그리고 그들의 시민 역할의 덕으로 선출되지 말아야한다. 그러므로 출교 또한 시민들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적 권위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⁸⁴⁾

흥미롭게도 칼빈의 사용과 재세례파의 사용에는 주석적 유사성이 있다. 1525년 6월, 후브마이어(Hubmaier)는 권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정의하는 유사한 방법에 있어 동일한 인용을 사용한다.⁸⁵⁾ 이 의견을 갖도록 한 스트라부르크의 재세례파에 대해 부처와 칼빈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논의 될 수 없는가?⁸⁶⁾ 칼빈의 주석은 계약적 비교(OT-NT)에 대한 쯔빙글리파 동료들의 주장에 의식적으로 반대하고 특별히 신약 읽기를 선택하는데 있어 분명히 재세례파의 패턴을 따른 것 같다.⁸⁷⁾

83) Ibid., 322.

84) Ibid., 323

85) K.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46. The promise was made by the nearly baptized: “if he should in the future bring reproach upon the name of Christ by open and grievous sin, that he will submit to any punishment his brethren may infli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Christ (Matthew 18).”

86) Ibid., 49. K. Davis asserts that there is strong anabaptist influence on this issue.

87) E. McKee, “Calvin, Discipline, and Exegesis,” 326-327, summarizes the “Zwinglian” position [Bullinger, Musculus and Gwalther]: “The Zwinglian argument is based on the conviction that the OT and NT are a unity, that because the church had princes for discipline in OT, the role of Christian rulers is the same in the NT era.” She also asserts that Calvin’s understanding is that “the church order to be applied by Christians is founded only on the NT.” “There were no Christian magistrates in the earliest, model church, and thus the church of the sixteenth century dose not require civil rulers for true church discipline.”

VI. 결론

크리스찬 삶에 고난과 권징의 역할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 경건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본 논문은 칼빈과 재세례파 간의 연계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그것은 칼빈과 재세례파 간의 영적 강조에 있어 근본적 차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몇 동시대 주장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견해는 칼빈이 “거룩한” 크리스찬 공동체 보다는 잘 질서잡힌 크리스찬 공동체를 더욱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결론은 칼빈의 신학이 지상적 삶에 반한 영원한 삶의 중요성에 매우 뚜렷한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의 크리스찬 공동체가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고정되기를 원했고, 지상적 물건이나 활동에 묶이지 않기를 원했다. 사실, 이런 견해는 지나치다. 그는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세상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갖는 것 사이에는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스스로 인정한바 있다. 순결을 지키기위한 적극적 참여를 주장하는 칼빈을 부정하지 않는다면,⁸⁸⁾ “분리된” 삶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이 주된 가르침은 이차 자료에서 종종 무시된다. 이 정보를 훑어보면, 칼빈의 영성은 “세상 긍정하기(world-affirming)”라고 결론 내려진다. 세상 긍정하기(world affirming)라는 모티프가 칼빈이 인성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칼빈의 영성은 세상 긍정하기(world affirming)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 의미는 아니다. 이런 잘못된 예로 맥그래스(Alister McGrath)가 근래 출판한 “개혁주의 영성(Reformation Spirituality)”에서 논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자. 맥그래스는 칼빈을 세상 긍정하기(world-affirming) 영성을 가진 것으로 기술한다. 세상 긍정하기(world-affirming)에 의해, 맥그래스는 칼빈이 타락한 창조물에 대한 크리스찬의 상호 작용은 “ 그것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진다.”⁸⁹⁾는 것을 가르쳤다고 이해한다. “인간사회

88) “By ‘persecution for righteousness’ I mean our suffering not only to defend th gospel but also to maintain any rightful cause. Whether in defending God’s truth against the lies of Satan, or else in sustaining the innocent against the wicked and in preventing wrong or injury from being done them.” Calvin, *Piety of Calvin*, 68.

89) A. McGrath, “Reformation Spirituality: Historical Resources, Contemporary Possibilities,” *The Drew Gateway* 60, no.20 (1991), 84. Calvin held out for “the vision of a reformed and redeemed society, worthy of the name of the city of God.” Although McGrath’s assertion is well phrased, one cannot

와 문명...은 구원받을 수 있다.” 맥그래스에 따르면, 칼빈에게 있어서 “비록 죄에 의해 혼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의 질서는 회복될 수 있다.”⁹⁰⁾ “문명 혹은 창조물의 구원”에 대한 이 언급이 칼빈의 일차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가? 맥그래스는 불행스럽게도 그의 반복적인 주장하는 믿음에 맞추어, 단 하나의 일차 자료 인용⁹¹⁾을 제공할 뿐이다. 아마도 그 반복되는 견해가 이 점을 증명해주리라 희망했을 것이다.

맥그래스와 다른 어떤 이들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마도 한가지 이유는 이들 주석가들은 창조에 대한 칼빈의 긍정적인 면을 취한 다는 것이다. 예로 극장 모티프(the theater motif)이다.⁹²⁾ 그리고 칼빈 자신의 견해와 거리가 먼 그것의 적용의 확장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창조물의 기원적 선함에 대해 주장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는 땅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기술들은 인간의 삶이 세상 긍정(world-affirming)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덧없음(world-flight)을 강조하는 칼빈의 관점을 놓칠 정도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존 리이스(John Leith)의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라는 엄청난 연구로, 그의 결론이 훨씬 객관적이다. 리이스는 작품의 막바지에서, “「기독교 강요」의 특별한 장을 제외한다면, 칼빈은 사회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조직적 작업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⁹³⁾

find in the *Institutes* any equation of “city of God” with a “reformed and redeemed society.” As a matter of fact, the two times that the expression “city of God” appears (one quotation from Hebrews 12:18-22.Vul.[2.11.9] and the other from a passage in Bernard of Clavaux[3.2.25]) in the *Institutes*, the context is related to the Gospel or personal salvation.

90) A. McGrath, “Reformation Spirituality,” 85.

91) A. McGrath cites Calvin's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salm 11:4], vol. 1 : “it is the glory of our faith that God, the creator of the world, in no way disregards the order which he first established” (“Reformation Spirituality,” 85). That McGrath chose this passage is perplexing. The entire context of Calvin's exegesis here is that God's prelapsarian order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be vindicated at the time of judgment and never here on earth. In context, Mc Grath's citation is in fact an excellent expression of God's opinion, and a perfect repudiation of McGrath's own thesis. The context reads: “when in the world all justice lies trodden under foot, and faithfulness has perished, he [David] reflects that God sits in heaven perfect and unchanged, from whom it become him to look for the restoration of order from this state of miserable confusion.” “His [God's] judgement-seat [in heaven] is a sacred sanctuary for all who are in affliction and unrighteously oppressed.”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Psalm 11; 4], vol. 1), 164.

92) A. McGrath, *Reformation Spirituality*, 88.

93) John Leith,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9), 190

라는 결론을 내린다. 리이스의 작품은, 그것이 이차 자료에 널리 알려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가 “구속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칼빈이 믿었다는 일차 자료는 거의 없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칼빈이 세상 긍정(world-affirming) 영성을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그 주장은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칼빈이 “세상부정(world-denying)” 영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 메시지는 기독교강요, 주석들, 그리고 설교들 등에서 발견된다.

칼빈 자신의 문화적 정황은 세상 부정적(world-denying)세계관이 이끌었다. 그는 신약과 니케아 이전으로 제네바 교회가 그 시대의 청결과 순수함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칼빈에게 이 주제들은 니케아 이전 문헌들⁹⁴⁾에서와 그 후시대, 즉 끌레르보의 버나드(Bernad of Clairvaux)의 저작에서 발견된다.⁹⁵⁾ 칼빈의 문화적 정황에 더 가까운 것은 Devotio Moderna(현대적 경건)에 있는 강한 세상 부정적 영성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더 칼빈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⁹⁶⁾

교회적 권징의 교회 통제체계에 대한 칼빈의 바람은 그를 루터파와 심지어 그 밖의 “개혁파” 진영과 구별시켰다. 따라서 스트라스부르크-바젤-제네바 3국의 주축은 여기서 주목되어야만한다.⁹⁷⁾

94) Irenaeus, Hippolytus, the Catholic Tertullian, for example, saw the church as a “holy society of those who live in righteousness.” Yet, pre-Nicene views also held that the church was not only for the saints, but a place of training for sinners. Cf. J. N. D. Kelle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 & C Black, 1997), 200-202.

95) Cf. Dennis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96) That Calvin was influenced by humanism is a given, and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it has been asserted that the *Nachfolge Christi* concept found in the *Divotio Moderna* was meditated to humanism through Erasmus. Cf. Leonhard von Muralt, *Glaube und Lehre der Schweizerischen Wieder taeufer in der Reformationszeit Zurich: Kommissionsverlag Beer*, 1931, 6-7. Cf. also L.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21-22;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16.

97) Cf. Bernard Roussel, “de Strasbourg a Bale et Zurich: une ‘Ecole Rhenane’ d’exegese (ca.1525-ca. 1540),”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 68 (1988): 19-39.

VIII. 심화 연구

심화 연구는 에라스무스와 파렐 과 부처에게서 칼빈 영성의 근간을 연구 해야한다. 칼빈 뿐만 아니라 재세례파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주장하는 많은 문헌이 있다.⁹⁸⁾ 그러나 이 분야에서 칼빈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다. 칼빈 연구에서 항상 그렇듯이, 직접 인용에 의해 에라스무스의 영향에 대한 흔적을 살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철학(*philosophia Christi*)와 연관된 거룩성의 개념 뿐만 아니라, 고난, 교회치리, 그리고 국가(*state*)로부터의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유사한 사상은 심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비옥한 연구는 불어권 재세례파와 칼빈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메노시몬스와 칼빈사이의 직접적인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⁹⁹⁾ 이 주제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지가 어디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칼빈 학자라면 19세기 말기 유럽 사상에 따르는 것은 피하고 칼빈 당시의 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98) Cf. For example, Robert Kreider, "Anabaptism and Humanism,"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26 (1952): 123-41, esp. 123, who cite the earlier statement of Walther Koehler: "The profound spiritual father of the Anabaptists was Erasmus"; Heinold Fast, "the Dependence of the First Anabaptists on Luther, Erasmus, and Zwingli,"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30 (1956) : 104-19, esp. 109-11, who gives direct citations of Erasmus used by the Anabaptists and who also analyzes the historiography of the question of Erasmus' influence until that time. Thor Hall, "Possibilities of Erasmian Influence on Denck and Hubmaier in Their Views on the Freedom of the Will,"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35 (1961): 49-70. Hans J. Hillerbrand, "The Origin of Sixteenth-Century Anabaptism: Another Look," *Archiv fuer Reformationgeschichte* 53 (1962): 152-180, esp. 158-60. Kenneth R. Davis, "No Discipline, No Church," 49.

99) T. Goerge makes an interesting statement that should be investigated: "in his early treatise on *True Christian Faith*, Menno described the new birth as a piercing of the heart by which the Holy Spirit -'with an unusual regenerating, renewing, vivifying power'- produces first of all the fear of God, which in him leads on to the love of God. Here Menno came close to Calvin's definition of true piety as 'that reverence joined with the love of God which the knowledge of his benefits induces'." Timothy George,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62 (1988): 257-75, esp. 263

Bibliography

- Calvin, John, *The Piety of Calvin*, trans. and ed.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Baker, 1978)
- _____,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Apostle to the Romans*,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ies on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ies on the Catholic Epistles [1 Peter 2:24]*, trans. John Owen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 3,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 on Epistles to the Philippians, Colossians, and Thessalonians*,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 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vol.2,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Eerdmans, 1979)
- _____,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vol.5, trans. James Anderson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vol. 1, trans. John Pringle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Sermons on Deuteronomy*, (1583: reprint, Carlisle, Pa.: Banner of Truth Trust, 1987)
- _____, *Commentaries on the Book of Prophet Daniel*, vol. 2, trans. Thomas Myers (Grand Rapids: Baker, 1979)
- _____, *Commentaries on the Book of Genesis*, vol. 1, trans. John King (Grand Rapids:

Baker, 1979)

- Balke, W.,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Eerdmans, 1981)
- Hillerbrand, H.,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trans. and ed. D. Liechty (New York: Paulist, 1994)
- Hut, Hans, "On the Mystery of Baptism," [1526] in *Early Anabaptist Spirituality*, trans. D. Liechty (New York: Paulist, 1994)
- Kelle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 & C Black, 1997)
- Knox, John, *The Works of John Knox*, vol. 4, ed. David Laing (Edinburgh: T. G. Stevenson, 1854-64)
-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9)
- Nygren, Anders, *Agape and Eros*, trans. Philip S. Wat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 Wakefield, Gordon, editor of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Spiritu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3)
- Grundler, Otto, *The Spirituality of Western Christendom*, ed. Rozanne Elder (Kalamazoo, Mich: Cistercian, 1976)
- Dennis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Grand Rapids: Eerdmans, 1959)
- Runzo, J. E. G., *Communal Discipline in the Early Anabaptist Communities of Switzerland, South and Central Germany, Austria and Moravia, 1525-1550*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1978)
-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19 (1945), 24 (1950), 26 (1952), 30 (1956) 35 (1961), 62 (1988)